“목마를 때 물 찾듯 간절하게 참구하라”

4월 15일 무여 스님 법문



금곡 무여 스님은… 동화사, 송광사, 해인사, 관음사, 칠불사, 망월사 등 전국 선원에서 참선 수행했으며 칠불사 선원장, 망월사 선원장, 조계종 기초선원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봉화 문수산 축서사를 중창하고 문수선원을 개원해 대중들에게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오늘은 담선대법회 3일째로, 오대산 도인으로 존경받았던 방한암 대종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종사께서는 1876년에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영특하고 비범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22살의 젊은 나이에 금강산 장안사의 행름 선사를 은사로 출가해 조선 왕조의 멸망, 일제강점기, 해방 정국, 6·25 전쟁 발발 등 암울했던 난세에 남다른 불굴의 수행을 하여 젊은 나이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방의 선지식으로 조선불교 교정에 추대됐고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을 세 차례나 역임한 한국불교의 얼굴이며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대종사님께 “마음을 닦으려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더니 “화두선을 해라. 최고의, 최상승의 수행법이니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행법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수행법 중에 최상승법은 화두 수행법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바른 수행법이 화두 참선입니다.

한암 대종사님은 발심한 지 1년 만에 깨치셨습니다. 발심하여 제대로 참구하면 그렇게 빠르게, 쉽게도 깨칠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말법세상일수록 삿된 법에 빠지지 말고 최고의 법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대종사께는 “참선하는 사람이 진정한 깨달음을 밝히고자 한다면 자신의 마음이 부처이며 자신의 마음이 법인 줄 알아서 철저히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발심자는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믿고 진정으로 믿어서 아주 철저하게 발심해야 합니다. 발심이란 ‘발보리심(發菩提心)’의 준말로, 보리를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보리란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 즉 무상등정각(無上正等覺)을 말합니다. 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대단한 마음을 내는 것이 발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암 대종사께서는 24살 때 보조국사가 쓴 〈수심결〉의 ‘만약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자성 밖에 법이 있다는 생각을 굳게 집착하여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소신연비의 고행을 하고 모든 경전을 독송하더라도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아 오히려 수고로움을 더할 뿐이다’라는 구절을 읽고 진정으로 발심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는 “화두를 드는 방법은 급하지도 느슨하지도 않게 하는데 절묘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두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아주 차분한 상태에서 성심성의껏 일깨우면 누구나 의심이 일어납니다. 너무 급하게 들면 의심을 일으키기가 어렵고, 마음이 불안하고 들뜨면서 동요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파 뜯듯이 하라’고 하셨어요. 화두 참구도 아주 적당하게 알맞게 하라는 말입니다.

참선하다 보면 수많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을 한 의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 결국은 한 곳으로 집중이 돼서 한 의심으로, 참으로 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옛 선사 말씀에 화두 공부는 간절(懇切) ‘절’ 자, 한 자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화두하는 데는 여러 말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오직 간절하게, 간절하게만 하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밥 생각하듯이, 목마를 때 물 생각하듯이, 간절하고 간절하게 생각해서 일체의 헤아림도 없고, 깨달아서 아는 것도 놓아버리고 즉 한 치의 풀, 한 개의 티끌이라도 일체 직분의 망상도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감정과 지식을 다 끊고, 또 특별히 성스럽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성성역력하게 밀밀면면하게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공부인은 수행하다 보면 경계에 따라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기기하고 명료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화두의 의심만이 아주 성성역력하게, 아주 또렷또렷하고 분명하게 들어가고 아주 밀밀면면하게, 즉 차근차근하게 끊임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종사께서는 이 화두 참구법으로 수행해서 24살 때 1차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어 25살에 양산 통도사 백운암에서 또 깨닫고요. 세 번째는 28세 때 합천 해인사 퇴설당에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37살 때 평안북도 맹산 우두암에서 깨우쳤다고 합니다. 한 해 여름에 범어사

‘한암 스님’ 주제로 ‘화두참구법’ 강조
“암탉이 알 품듯 절실하게 정진하라”
화두 공부는 오직 간절함에서 나와

삶과 죽음 경계 없이 ‘여여’하길 강조
“면밀하고 빈틈없는 공부” 당부하며
하루 5분 선명상은 수행의 ‘첫걸음’

선원에서 하안거하는 수좌 스님이 맹산 우두암에 아주 어떤 수좌가 공부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찾아갔다고 합니다. 우두암에 도착하니까 신발 한 켤레 달랑 놓여있었어요. 문을 슬그머니 열어보니까 한암 스님께서 면벽하고는 앉아 계셨대요. 선정에 든 거에요. 수좌는 한암 스님 뒤편에 앉아 같이 정진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스님은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3일간 한 방에 있었는데, 한 번도 일어나는 걸 보질 못했어요. 공부 잘하는 스님한테 한 수 배우고, 자기도 정진하겠다는 대단한 마음을 먹고 올라갔는데, 오히려 스님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사흘만에 내려갔어요. 그때부터 한암 스님이 유명한 수좌로 제방에 알려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후 스님은 선지식으로 대중 지도를 했습니다. 29세에 양산 통도사 내원암 조실, 46세에 금강산 금봉사 조실을 역임하셨습니다. 48세에 이곳 서울 봉은사에서 조실로 추대됐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천고의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춘삼월의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노라”는 게송을 남기고 오대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이후 27년간이나 오대산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스님께서는 59세에 조선불교 7인의 교정에, 60세에 선종의 종정으로 추대됐습니다. 66세 때 대한불교조계종이 공식적으로 발족한 이후에는 초대 종정, 이대 종정을 지내셨습니다.

선사께서 이런저런 선행과 덕행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1923년 봉은사 조실로 계실 때 서울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당시 6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가 됐답니다. 그때 스님께서 주지 청오 스님에게 “한 사람 구하는 데 쌀 한 가마를 주겠다”고 해서 무려 708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일이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됐고 선행과 덕행을 해야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 오대산 상원사를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1951년 일사후퇴 직후에 국군 작전 지역에 있는 오대산에는 사찰을 포함한 시설물을 소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국군 장교가 상원사에 들이닥치자 스님께서는 법당 불상 앞에 정좌해서 “나는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불을 지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장교가 사찰 문짝만 뜯어 태우고 떠났습니다. 상원사는 죽음 앞에서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한암 선사의 기개와 국군 장교의 지혜로운 결단으로 지금까지도 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암 대종사께서는 1951년 3월 22일, 음력 2월 보름날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가사장삼을 수하고 법당 좌복에 정좌하고 반듯하게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여(如如)라”는 진리를 설파하셨습니다. 즉 진리란 깨달음의 진리, 열반하신 순간의 진리, 지금 돌아가신 순간의 견처(見處). 그 경계와 죽음을 맞이하는 경계가 여여하다, 즉 한결같다는 거예요.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24살 때 깨달은 그 견처가 70년을 지난 그때까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깨달았을 때의 형용할 수 없는, 그 오묘한, 바로 그 경계 그 자체라는 거예요. 누구나 꿈꾸고 희망하는 세계, 일체 괴로움이 없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그 세계. 그 세계를 흔히 극락세계, 정토세계라고 합니다. 그 세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여한 그 상태로, 깨달았을 때나 가실 때나 견처가 꼭 같은 상태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 속에 오래오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여 그 자체를요.

여러분께 지금까지 들려드린 한암 스님의 수행법, 거룩하고 훌륭한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하시면서 수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암 스님은 암울했던 말법시대에 활짝 핀, 한 떨기의 우담바라 같은 존재였습니다.

화두가 잘 들리지 않는 공부인은 이 참구법을 잘 정리해 매일 몇 번씩 읽으세요. 삼배하면서 읽고 읽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읽으세요. 그러면 읽는 것만큼 신심이 나고, 믿음이 되고 그러면서 발심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던 화두도 어느 사이에 여여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공부, 마음수행은 반드시 화두선으로 하세요. 이런저런 인연으로 여러 가지 수행법을 하시더라도, 그 수행법의 묘미를 느낄 정도가 되거든 꼭 화두로 갈아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두선은 최상승법이고 최고의 법입니다. 발심하기에 따라서 가장 빠른 수행법이 화두 수행법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대단한 직업을 가지면 좋겠지만, 하루에 네 끼, 다섯 끼 안 먹어요. 크게 잘 산다고 해도 오십보백보에요. 보통으로 살고 예사롭게 살되, 수행법은, 즉 열반의 길은 최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얼른 윤회의 괴로움을 벗어나서 몇 생 내지 수십 생을 빨리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치듯이,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총무원장 스님께서 5분 수행법을 말하는데 사실 궁여지책의 말씀입니다. 그렇게라도 인연을 맺어서 장차 큰 도인이 되고 수행인이 되고 일생을 풍미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 되라는 첫걸음이 5분 명상법입니다.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화두로 갈아타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화두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오직 이 길뿐이다 하는 마음으로 진력하세요. 위없는 보리도(菩提道)를 구하고자 한다면, 화두 일구(一句)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정리=박지운 수습기자

“이기심을 버리라는 말은 틀렸다”
문제는 욕망이 아니다

욕망을 없애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오스 숲속 사찰에서 수행 중인 쿠바 탐디 스님은
자신을 “이기심을 안고 사는 수행자”라고 고백한다.
이 책은 욕망을 억누르라는 대신,
통찰하라고 말하는 인문 수행서다.

나는 이기적 스님이다
쿠바 탐디 | 400쪽 | 23,000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25년간 청년들을 만나며 그들의 오늘의 삶을 고민해 왔다. 자유를 찾아 욕망이 지배하는 도시를 떠나 라오스 푸딘댕청소년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냈고 출가한 수행자이지만 여전히 갈애와 집착, 어리석음을 안고 사는 한 인간이다. 홀로 서는 자유를 꿈꾸며 출가했으나 인간은 끝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배웠다. 삶의 진실은 세상에서 벗어난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현실의 한복판에 있었다. 완성된 스님이 아니라, 길 위에 선 초보 수행자로서 수행의 길을 걷는 중이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